

## 여운형의 정치이념: 민족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전재호 | 서강대 SSK 연구팀 전임연구원

이 글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인물인 여운형의 정치적 활동과 정치이념을 다루었다. 그는 동학, 유학, 기독교, 민족자결주의, 공산주의 등 다양한 이념의 영향을 받았고, 식민지 시기에는 중국에서 한국 독립운동과 중국 혁명운동에 참여했으며 귀국 후에는 언론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했다. 해방 직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공화국에 참여했고 좌우갈등이 심해진 후에는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했다.

여운형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이념은 민족주의로, 초기에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실력 양성운동에 참여했고 1910년대 후반부터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으로 민족독립을 천부의 권리로 주장했다. 또한 3.1운동 이후 소련이 조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보고 공산주의에 공감했고 그것을 조선 현실에 맞게 변형하여 수용했다. 그가 구상한 새로운 정치체제는 인민에 의해 운영되고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로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의해 담보되는 민주주의였다. 그는 민족을 중심에 놓은 동시에 대중의 정치참여에 의한 민주주의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그를 ‘민주적’ 민족주의자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여운형, 민족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민족자결의 원칙, 진보적 민주주의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A-B00005).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해방 이후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전개를 고찰하기 위해 주요 정치적 인물들의 정치이념을 고찰하는 연구의 일부로서, 한동안 한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던 몽양(夢陽) 여운형(呂運亨: 1886~1947)의 정치이념을 고찰한다. 그는 냉전 시기 반공 이데올로그들에 의해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도, 학술적으로 연구되지도 못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기 시작했고 그의 정치 활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많은 연구자들이 여운형을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노력한, 그리고 좌우 세력을 통합하려 한 ‘중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오(好惡)가 갈린다. 한편에서는 진취적이고 포용적인 민족 운동가였다고 극찬하는데 비해, 다른 한편에서는 공산주의에 도취되었던 짓대 없는 기회주의자였다고 규탄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운형의 정치이념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는 점이다.<sup>1)</sup>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병준은 여운형 “정치사상의 핵심에는 민족통일이 놓여 있”고 “남과 북을 막론하고, 좌와 우를 물론한 민족통일노선”이며 “이는 민족의 통일·단결과 화합을 위해서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운형의 “삶이 진보적 민족주의자로 일관되었듯이, ... 민족해방과 민족통일·단결과 화합을 위해서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것”이었고 “사상·이념·이데올로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정병준 1995, 9).

최상용은 여운형의 정치이념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절충적으로 공존”하는 “절충적·혼합적 정치이념”이라고 주장했다. 곧 “민족독립의 문제에서는 민족자결주의를 자신의 민족주의 사상의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었고, 통

1) 필자의 부족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운형은 물론 그의 이념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찾지를 못했다. 다만 그가 활동하던 당시 우파들은 그를 공산주의자로, 그리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그를 기회주의자 또는 개량주의자로 비판했다.

일문제에 있어서도 좌우의 연합전선을 통한 통일정부의 수립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 민주주의는 평등을 중심 가치로 보는 사회주의적 요소와 자유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적 요소가 혼재하고 있으며, … 당시 미국과 소련이 공유한 반파시즘·민주주의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했다(최상용 1997, 96).

최장집도 여운형을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민족분단을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던 진정한 민족주의자”였으며, “혁명적 사회주의와 대립되는 자유주의적 개혁, 관용과 사려깊음(prudence), 타협과 조정, 공존의 행동양식을 실천에 옮기고, 갈등하는 이데올로기가 공존할 수 있고 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경쟁의 규칙을 제도화하려고 시도했던 그는 진정한 자유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였다”고 평가했다(최장집 1997, 146).

이정식은 “여운형의 사상이 ‘모호했다’ 또는 ‘기회주의자였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사상적인 틀을 무리하게 맞춰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등의 용어에 끼워 맞출 수 없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지 그가 모호하거나 야릇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대신 그를 “폭이 넓고 … 자만과 오만이 없는 인물”로서 ‘반(反)제국주의운동가’며 ‘진보적인 민족주의자’였다고 주장했다(이정식 2008, 7~8).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는 아쉬움을 남긴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로 그의 정치활동만을 다루었지 정치이념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동학, 기독교, 민족자결주의, 공산주의 등 상당히 다양한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 다양한 사상이 각축했던 한국 현대사에서 이런 이념들의 영향 아래서 자신의 이념을 실천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이념을 고찰하는 것은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전개를 파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이 글은 여운형을 해방 이후 독립국가 건설, 민주주의 실현, 사회경제적 근대화와 같은 민족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상가로 간주하고 그가 당대의 주요한 정치이념이던 민족주의 및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과 그가 구상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고찰한다. 그런데 60여년의 활발한 활동에 비해, 그는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거나 저작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진술서, 간략한 단상, 연설문 등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 글은 단편적인 자료와 행적에 의존해서 그의 사상을 논

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남은 자료와 정치활동을 통해 그의 사상 형성과정에 접근하여 그가 당대의 주요한 정치이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를 고찰한다. 이 글의 구성은 먼저 2장에서 사상적 궤적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정치 활동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그의 정치이념을 민족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4장에서는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전개에서 그의 위상을 정리한다.

## 2. 여운형의 활동과 사상적 궤적

### 1)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1886~1910): 동학, 기독교, 사회진화론

여운형은 1886년 1월 10일 경기도 양주군(현재 양평)에서 출생하여 14세까지 조부에게 한문을 전수받았다(강덕상 2007, 28). 주목할 사실은 조부의 아우 여승현이 열렬한 동학교도이자 간부였고 조부 역시 동학에 심취했다는 점이다.<sup>2)</sup> 그 후 그는 ‘개화파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던 17촌이던 죽숙 여병현에게 영향을 받아 1900년(15세) 배재학당에 입학했다.<sup>3)</sup> 여기서 그는 신지식을 습득하면서 봉건적 조선사회의 봉건적 모순에 눈뜨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무적인 예배 참여에 반발하여 1년 만에 자퇴하고 1901년 민영환이 설립한 흥화학교로 진학했다. 그는 1903년 9월과 10월 조부 및 부인의 사망을 겪은 후 학교를 그만두고 기술자 양성기관이던 통신원 부속 우무학당(郵無學堂)에 입학했다. 그런데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 체결과 민영환의 자결 이후 일본에 격분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양평으로 돌아가 민영환의 ‘애국심’을 설파했다(강덕상 2007, 44~45). 이렇게 서울

2) 여운형은 1932년 3월호 『中央』 「나의 회상기」에서 “조부의 감화가 나를 많이 지배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그가 조부로부터 동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정식 2008, 27).

3) 여병현은 1895년 일본으로 유학 갔고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서구의 신학문을 접했으며 귀국 후 미국 공사관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배재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YMCA에서 활동했다(이정식 2008, 31~41).

유학시절 그는 서구의 신학문과 기독교를 접했고 대한제국의 몰락을 눈앞에서 접하면서 애국심을 갖게 되었다.

1906년 4월 부친의 사망을 계기로 귀향한 여운형은 당시 활발하게 전개되던 자강운동에 참여하여 인근 청소년을 모아 신학문을 가르쳤고 장로교 미국인 선교사인 콕안런(Charles Allen Clark) 목사의 도움을 받아 사립 기독교 광동(光東)학교를 설립했다.<sup>4)</sup> 그는 부친의 삼년상 탈상 이후 가족들과 함께 기독교에 입교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가 서양 문명을 전달하는 통로이자 구문화, 구윤리, 구생활의 비판자로서 자유와 평등을 가르치고 교육을 보급하는 추진자였기 때문이었다(강덕상 2007, 61). 그는 기독교를 조선의 낡은 정치와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복음이자 보루로 인식했다(강덕상 2007, 60).

여운형은 서울 승동교회에서 약 5년간(1907~1910, 1911~1913) 콕안런 목사의 조사(助師)로 근무했는데, 1910년 봄 황성신문 사장이었던 남궁억의 초청으로 강릉 초당의숙에 초빙되었으나 1911년 여름 명치연호 사용 문제로 경찰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고 서울로 돌아와 다시 콕 목사의 조사로 근무했다(여운홍 1967, 19). 또한 이 시기 그는 콕 목사가 강의를 담당하던 평양 신학교를 2년간 다녔다. 이 사실과 1914년 중국 망명 후 진령대학 신학부에 지원한 사실을 볼 때, 당시 기독교에 대한 그의 신앙이 상당히 독실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29년 일본 검사에게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언급한 사실을 볼 때, 기독교는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볼 수 있다.<sup>5)</sup>

한편 여운형은 1908년 2월 8일 젊은이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sup>6)</sup> 또한 사회진화론에 자극받은 자강운동의 일환으로 시

4) 자강운동은 사회진화론에 기초하여 시작된 민족운동으로 “교육과 실업을 진흥함으로써 경제적 문화적 실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부국강병을 달성하여 장차 국권회복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운동”이었다(박찬승 1992, 17). 이를 주도했던 인물들은 주로 교육이 자강독립의 기초이고 구국의 길임을 알리는 계몽운동을 전개하면서 각 지방에 학교를 설립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5) 그는 “당신의 사상이 무엇이었요”라고 묻는 일본 검사의 질문에 “나는 기독교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유물론은 받아들일 수 없소”라고 답했다(이환의 1993, 194).

6) 여운홍은 도산의 연설을 듣고 “우리도 훗날 저런 웅변가가 되어, 나라를 위해 죽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기술했다(여운홍 1967, 7).

작된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자 양평에 지회를 조직하고 매일 장터에서 국채를 갚자는 연설을 했다(여운홍 1967, 8). 이는 이 시기 그가 강한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른 한편 여운형은 1908년 4월 부친 탈상 후 가문이 모셔온 신주, 지신, 양신 등을 불태우고 집안의 노비를 해방시켰으며 제사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이는 계급제도에 대한 죄책감 및 기독교 사상과 동학의 가르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이정식 2008, 52~53). 더욱이 ‘백정교회’로 알려진 승동교회에서의 활동은 그가 평등사상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했다(이정식 2008, 80~83)<sup>7)</sup>.

결국 유년 시절 이래 여운형은 동학, 근대 교육기관의 수학, 승동교회의 활동을 통해 평등 의식을 갖게 되었고 대한제국 몰락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자강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의식을 습득했다. 곧 동학, 서구식 교육, 기독교, 그리고 자강운동은 이 시기 그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 2) 식민지 시기(1910~1945): 민족자결주의, 공산주의

여운형은 1911년 ‘105인 사건’ 발발 이후 망명을 고려했고 1913년 곽안련 목사를 수행하여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한 서간도 각지를 순방한 후 1914년 중국으로 떠났다. 여운형은 난징(南京)의 미국계 기독교 학교인 진링(金陵)대학에 입학했는데, 난징은 중국학생들의 반일정서가 팽배한 지역이었기에 그의 반일 정치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915년 5월 위안 스카이가 일본이 중국 정부에게 요구한 ‘굴욕적인’ 21개 조항을 수용하자 중국인들의 반일의식이 고조되었고, 그 역시 이에 동조했다. 1916년 말 그는 진링대학을 떠나 상해로 이주했고 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YMCA 계통의 책방인 협화서국(協和書局)에 취직했다. 여기서 그는 동포들의 구미 유학과 도항절차 및 미국으로 결혼이주하려는 조선 여성들의 여행을 알선했다. 또한 1917년 1월에는 상해 조선인 교회의 전도인으로 피선되어 예배를 주관했고 조선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인성학교를 설립하여 교

7) 승동교회는 창립자 무어 목사가 백정들의 지위 향상에 노력했기 때문에 다수의 백정들이 입교함으로써 백정교회로 알려졌다.

장으로 활동했으며 1918년에는 신석우 등 동포들과 함께 친목회를 조직하여 총무로 활동했다.

여운형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18년 11월 28일 크레인(Charles Crane) 미국 주중대사의 민족자결권에 대한 연설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 특히 크레인은 그에게 조선대표의 파리강화회의 파견을 권유한 것은 물론 조선 입장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 이에 그는 장덕수와 함께 파리강화회의에 조선 대표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신한청년단을 결성하여 1919년 1월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했다. 또한 그는 1919년 초 김 철, 장덕수 등을 국내와 일본에 파견하여, 그리고 자신도 간도와 시베리아 방면을 순회하며 조선대표 파견 사실과 독립운동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활동에 자극받은 동경 유학생들이 1919년 ‘2.8 독립선언’을 발표했고, 국내에서는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났다. 이후 그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외무부 차장으로 임명되었고 상해 교민단장으로 활동하면서 교포 자제의 독립사상과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인성학교(仁成學校)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1919년 11월 일본 정부는 온건한 조선인을 회유하여 임시정부의 단결을 ‘붕괴’시키고자 여운형을 도쿄로 초청했다. 임시정부에서는 총리 이동휘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사들이 찬성하여 그는 장덕수, 최근우, 신상완 등과 함께 일본의 초청에 응했다. 도쿄에서 그는 일본 고위관리들과 수차례 회담하면서 일본의 조선자치제안을 공박하고 조선 독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무분별한 제국주의적 팽창은 동양 평화를 교란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일본에게도 큰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정식 2008, 196). 특히 제국 호텔에서의 연설은 일본인을 공감시킴으로써 일본 정부의 의도를 무산시키는 동시에 조선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활약상이 「독립신문」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는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일약 국제적 존재가 되어 중국 혁명가 및 정치인들과의 교분이 확대되었다.

결국 여운형은 1919년을 전후하여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 신한청년단 결성, 파리 강화회의대표 파견, 상해 임시정부 참여, 일본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조선독립에 대한 확고한 논리를 정립하게 되었다.

이 시기 여운형의 활동과 사고에 새롭게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요소는 피억압 민족에 대한 국제공산당(코민테른)의 지원과 공산주의였다. 소련은 내외의 ‘반혁명’ 시도를 극복한 후 피압박 식민민족들에게 사상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그 결과 피식민 민족주의자들은 소련을 우호적으로 생각했고 그들의 초대와 지원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도 1920년 1월 동경에서 돌아온 후 상해에 파견된 국제공산당 극동부장 보이친스키의 권고로 고려공산당에 가입했다.<sup>8)</sup> 이는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국제공산당의 지원 때문이지 공산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sup>9)</sup>

여운형은 1921년 12월 소련이 구미 열강들의 워싱턴 회의에 대항하기 위해 1921년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극동민족대회에 한국 대표단의 단장으로 참석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또한 레닌과 만나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약속받은 동시에 현 시점에서 농업국인 한국에서는 공산주의보다 민족주의를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확인했다. 곧 한국의 당면과업은 공산주의의 실시가 아니라 독립 쟁취라는 점을 레닌으로부터 확인받고 그들의 호의를 수용했다.<sup>10)</sup>

1922년 4월 상해로 귀국한 후 여운형은 중국 전역에서 가열되던 반일감정을 이용하여 한중합작운동에 주력했다. 그는 동양평화를 이룩하려면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협력해야 하는데,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침략하고 있으니 두 나라 백성들이 협력하여 일본의 침략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과 중국의 혁명운동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고 나중에는 중국혁명 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이정식 2008, 333). 당시 그는 손문의 권고로 국민

8) 사실 고려공산당은 별다른 활동도 전개하지 못했고 분파 갈등으로 국제공산당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9) 그는 고려공산당의 목적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공산주의의 자연실현을 몽상해 조직한 단체로 당시는 러시아혁명 직후의 일이어서 조직한 자도 공산주의가 여하한 것인 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의 강령 등도 충분히 성립되지 않아 사유재산제도의 부인 또는 국체의 변혁 등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 1991, 400~401).

10) (답) 레닌은 조선은 … 지금 당장 공산주의를 실행하는 것은 잘못이고, 지금은 민족주의를 실행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이는 나의 이전부터의 주장과 일치하는 말이었다(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 1991, 544).



당에 가입했고 구추백(瞿秋白)의 알선으로 중국 공산당원의 대우도 받게 되었다. 이는 그가 국공 양쪽에 동시에 협력함으로써 장차 한국 독립에 그들의 힘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데 따른 것이었다(여운홍 1967, 73~74).

여운형은 1925년 3월 손문 사망 이후 국제공산당 및 소련정부의 대표인 보로딘과의 인연, 그리고 카라한 주중 소련대사의 요구, 그리고 상해에서 경험한 5.30 운동을 계기로 중국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국공합작의 취지에 동조하여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양쪽에 가입하여 연락업무를 담당했고 1926년 1월 광저우 국민당 제2회 대표대회에 초대받아 ‘중국국민혁명의 전 세계적 사명’이라는 연설도 했다(여운형 2008, 125). 1927년 국공합작이 결렬되자 그는 1928년 생계를 위해 상해 복단(復旦)대학에 취직했고 1929년 대학 선수단을 이끌고 동남아를 여행하던 중 필리핀에서 아시아 피압박 민족해방을 위해 아시아 모든 민족이 단결하여 공동 투쟁을 전개하여 구미 제국주의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지로 연설을 하는 등 반제국주의 투쟁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해 귀환 후 곧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여운형은 1932년 7월 출감한 후 조선총독부의 계속된 회유를 거절하고 1933년 “국내에서 독립운동의 총본영과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조선중앙일보」 사장직을 수락했다. 그는 경향 각지에 지사와 지국을 많이 설치하여 과거 독립운동을 하던 동지들과 사회주의자들을 책임자로 삼았고 본사에도 우수한 청년들을 발탁했다(여운홍 1967, 95). 「조선중앙일보」는 사회비리 고발, 농민, 노동자, 학생운동 변호 등의 논조를 전개했고,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살사건’으로 인해 결국 1936년 7월 5일 폐간했다. 귀국 후의 활동은 그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는데, 3년 동안의 감옥생활은 독립운동가로서 그의 경력을 더욱 빛나게 하여 민족의 추앙을 받게 했고, 조선중앙일보에서의 활동은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로서 그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간(15년) 해외에서 보냈던 그에게 국내에 정착하여 세력을 형성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이정식 2008, 436). 이 시기 그는 1934년 조선체육회 회장에 취임하여 각종 경기를 주최 또는 후원하여 청년학도들에게 운동정신을 통한 조국애와 독립정신 고취에 주력했고 1935년에는 충무공이순신 장군의 묘소재건을 추진했으며, 김구의 모친인 광낙원 여사와 아들 김인, 김신 형제의 상해 탈출을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여운홍 1967, 95~96).

이후 여운형은 총독부의 협력 요구를 계속 거절했지만 중일(中日) 친선 협력 요구를 상의하기 위해 도쿄행을 받아들여 1940년부터 1942년까지 5차례 도쿄를 왕래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패망을 직감한 그는 1942년 이정구에게 식량조사 와 그 대책을, 장관에게는 치안대 조직에 대한 계획을 지시했다. 1943년 12월에는 주변 인물에게 일본 패망 발언을 했다는 구실로 경성헌병대에 연행되어 구속되어 징역 1년,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경성요양원에 입원했다. 이후 그는 계속된 일본의 협력 요구를 거절하고 1944년 봄 양주군 봉안으로 내려가 은거하면서 일본 패망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8월 건국동맹을 건설하고 해외와의 연락을 긴밀히 했다(정병준 1995, 63~110).

### 3) 해방 이후(1945~1947):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좌우합작 노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총독부의 엔도오 류사쿠(遠藤柳作) 정무총감이 그에게 일본인의 신변보장을 요청하자 여운형은 다섯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치안유지 책임을 맡았다(여운형 2008, 319). 그는 한반도가 연합국에 의해 해방되었을지라도 건국 준비는 국내세력이 주체적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안재홍, 이상백, 이만규 등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를 결성했다. 그는 건준을 반민족적·반민주주의적 세력을 제외한 전 민족 세력을 결집하는 통일전선체로 만들려 했다. 그러나 건준은 내부의 파벌 갈등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안재홍 등 우파세력이 이탈하면서 좌익만의 집합체가 되었다. 게다가 조선공산당의 ‘극단적’ 좌경 노선에 따라 건준이 해산되고 인민공화국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그는 주도권을 상실했다(이정식 2008, 532~541).

인공 수립 이후 여운형은 칩거하다가 11월 12일 조선 인민당을 결성했다. 인민당은 “개방적인 대중적 정당”으로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한 전인민의 완전한 해방을 기본 이념으로, 조선의 완전독립과 민주주의국가의 실현을 그 현실적인 과제로 제시했다(이정식 2008, 570). 그가 인민당을 결성한 것은 그의 생각이 한민당은 물론 공산당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인민당은 근로층과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당인 점에서는 공산당과 동일하지만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의 역할을 “조선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노동자 농민은 프롤레타리아트적 정치

의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층을 계몽하여 다음에 오는 정치적 조직화에 대한 전 단계적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정식 2008, 568~569). 그래서 여운형은 인민당을 통해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자본가나 지주도 포용하고 제후하여 광범한 혁명적 민족전선을 이룩하려 했다. 그러나 공산당 계열이 인민당을 장악하면서 여기서도 그는 주도권을 상실했다(이정식 2008, 583~584). 특히 1946년 7월 공산당이 인민당과 신민당을 흡수하는 3당 합당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며 인민당의 당수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9월 평양 방문 시 소련의 ‘질책’을 듣고 결국 3당 합당에 동의했고 소련이 반대하는 과도입법의원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그가 여전히 소련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운형은 서울로 돌아온 후 입장을 바꾸어 김규식을 만나 좌우합작을 추진했다. 10월 7일 김규식과 함께 박헌영이 제시했던 5개 원칙과 정반대되는 좌우합작 7개 원칙을 발표했고, 좌우합작을 성사시키기 위해 3당 합당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결집시키려 했다(이정식 2008, 617~618). 이로 인해 공산주의자들의 지속적인 방해와 비난에 시달렸고 좌우합작이 무산되자 12월 정계은퇴를 선언했다.<sup>11)</sup>

여운형은 1947년 초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자, 4월 백남운, 장건상 등과 함께 근로인민당을 창당했다. 그는 “남로당은 극단적으로 좌익이며 오직 우리 당만이 올바른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군정과 투쟁하는 남로당과 달리 자신은 미군정과 협력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정식 2008, 624~625). 이는 “조선에 미군 군대가 주둔하고 미군정이 실시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인식에 따른 결정이었다(이정식 2008, 628). 미군정 역시 난국에 빠진 남한의 정세를 해결하기 위해 좌우합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운형에게 직책을 맡길 것을 고려했다. 이에 그는 미소공동위원회 협의규정에 따라 6월 개최된 서울 합동 회의에 참가하여 통일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통일전선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7월 19일 미군정 민정관 존슨(E. A. J. Johnson)을 만나러 가는 도중

11) 소련군정은 삼당합당 과정에서 여운형의 잠적을 비난하면서 ‘기회주의와 개량주의’가 그에게 고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국사편찬위원회 2003, 131).

에 해화동 로터리에서 피살되면서 남한 내 좌우합작 노선은 좌절되었다(이정식 2008, 626~627).

결국 해방 정국에서 여운형은 조선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통일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건준, 인민당, 근로인민당 등을 결성하고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좌우 모두로부터 비판받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이용당했지만 죽는 날까지 통일정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 민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

### 3. 민족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여운형의 인식

여운형은 한학과 동학의 영향 아래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근대 교육을 통해 서구의 사고방식을 접하고 기독교에도 입문했다. 특히 대한제국의 붕괴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자강운동에 참여했다. 동학과 기독교는 그에게 평등한 인간관을, 그리고 자강운동은 민족의식을 갖게 만들었다. 중국 망명 이후 그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접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새롭게 등장한 국제공산당과 공산주의를 접하게 되면서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이러한 사상적 궤적을 거쳐 그가 해방 후 한국의 주요 정치이념이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인식과 구상을 살펴본다.

#### 1)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

여운형은 당대의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독립과 자주국가의 건설을 지향했기에 그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이념은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민족의 독립, 통합, 발전, 자긍심의 고양 등을 지향할 뿐 그에도달하는 방법을 포함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이념과 결합될 수밖에 없는 독특한 개념이다.<sup>12)</sup>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각자 자신의 이념과 견해에 따라

---

12) 민족주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변혁이나 정치적 행위의 지침을 지닌 다른 이념과 결합하는 '이차적 이데올로기'로 간주된다(Eccleshall 1994, 30).

조선의 독립과 국가건설을 추구했다. 대표적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방법에서 실력양성, 무장투쟁, 또는 강대국 외교로, 그리고 국가건설 방법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또는 양자를 절충한 사고로 갈렸다. 따라서 특정 인물의 민족주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의 민족주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절은 여운형의 민족주의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를 고찰한다.

여운형은 일본의 조선 침략을 경험하면서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고 당시 활발하던 자강운동, 특히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시의 지배적 사조는 사회진화론으로, 그것은 세계를 생존경쟁(生存競爭), 우승열패(優勝劣敗)로 설명하면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실력을 갖추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말의 민족주의자들은 이러한 사회진화론의 영향으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강운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이 논리는 한편으로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선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수용하는 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논리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박찬승 2010, 139). 따라서 당시 자강운동에 참여했던 여운형 역시 이러한 한계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여운형을 비롯한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의 사고는 1차 대전 전후로 등장한 미국 대통령 윌슨(W. Wilson)의 ‘민족자결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을 접하면서 변하게 되었다. 윌슨은 1차 대전 처리를 위해 피지배민족(식민지나 점령지역)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自決權)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승열패의 논리에 따라 민족의 불균등을 인정하는 사회진화론과 달리 ‘민족평등주의’에 기초하여 약소국이라도 강대국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지녔다. 여기서 여운형을 비롯한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했고 이에 용기를 얻어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곧 여운형에게 민족자결의 원칙은 약소국 조선 독립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진화론의 영향 하에 있는 실력양성론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sup>13)</sup> 게다가 그는 민족자결의 원칙을 접한 이후 조선 독립을 정당화하는 독특한

논리를 제시했다.

먼저, 여운형은 1910년대 국내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던 ‘선실력양성, 후독립론’의 논리를 비판하면서 독립을 선결과제로 주장했다. 선실력양성, 후독립론은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해 실력을 갖추어야 독립이 가능하다는 주장한 데 비해, 그는 독립이 먼저라고 주장했다(여운형 2008, 40).

정치는 반드시 민의에 순종하고 시대에 적합해야 됩니다. ... 전 민족의 요구가 독립에 있고 시대의 형세가 한국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오늘날 것 같으면 독립이 선결문제요, 부강책은 그 다음으로 강구할 문제입니다.

여운형은 민의(전 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형세를 내세워 독립이 선결과제이고 부강책은 그 다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국내 민족주의자들과 일본이 내세우는 조선의 실력 부족을 정당한 관찰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실력을 정치적 실력, 군사적 실력, 경제적 실력으로 구분하여 자신의 논리를 전개했다.<sup>14)</sup> 그는 정치적 실력에는 내치와 외교가 있는데, 내치의 힘이 충실하고 외교에 대해서는 “침략을 하려는 야심은 없고 다만 정의와 인도주의에 굳게 서서 세계 평화의 선봉이 되어 문화로서 세계에 응비하고자 하는 욕심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밖으로부터 시기를 받지 않을 것”이고 “지리적·전략적으로 보아도 한국의 독립은 동양 평화와 세계 평화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존중과 옹호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외교로 만도 넉넉”하다고 주장했다(여운형 2008, 45). 군사적 실력에 대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동맹식 연합이란 정치관계를 맺는 것이 마땅”하며 “독립 후 2~30년 동안 준비하면 여하한 강적이라도 방어할 실력을 갖추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현재 일본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무력이 없음이 사실이요, 그러나 소극적으로 일본의 실력을 분리시키

---

13) 여운형은 1918년 11월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대표 클레인의 상해 연설에 감격하여 파리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했다고 진술했다(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 1991, 409).

14) 일본은 “한국은 독립을 유지할 실력이 없다”고 주장했다(여운형 2008, 52).

고 군사행동을 방해하는 데 위대한 힘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여운형 2008, 46). 이렇게 그는 실력을 구분하여 조선은 현재 독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논리를 계발하여 사회진화론의 영향 하에 있는 선실력양성론을 비판하고 선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여운형은 조선 독립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다. 1919년 12월 일본 방문 시 ‘동경 제국호텔 연설’에서 그는 한국 독립운동을 다음과 같이 정당화했다(여운형 2008, 52).

일본인에게 생존권이 있다면 우리 한민족만이 홀로 생존권이 없을 것인가? 일본인에게 생존권이 있다는 것은 한인이 긍정하는 바이요, 한인이 민족적 자각으로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신이 허락하는 바이다. … 이제 세계는 약소민족 해방·부인 해방·노동자 해방 등 세계개조를 부르짖고 있다. 이것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적 운동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세계의 대세요, 신의 뜻이요, 한민족의 각성이다. … 때가 와서 생존권이 양심으로 발자된 것이 한국의 독립운동이요, 결코 민족자결주의에 도취한 것이 아니다. 신은 오직 평화와 행복을 우리 인생에 주려 한다. 과거의 약탈·살육을 중지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

여운형은 한국의 독립운동이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존권, 세계의 대세, 신의 뜻, 한민족의 각성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독립운동의 목적도 “조선에서도 인격을 인정받는 것. 즉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민족에게도 인격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 1991, 550). 한민족의 생존권 주장이나 인격권과 민족의 권리를 동일시하는 논리는 ‘천부인권설’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독립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의 권리’로 옹호하는 주장이었다. 게다가 그는 “조선 독립운동은 일시적인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오직 조선인의 영구적 자유와 발전을 위해서이며, 나아가 동양과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이다”고 주장했다(여운형 2008, 55). 곧 그는 한국 독립운동이 ‘한민족의 자유와 발전’ 뿐 아니라 ‘동양과 세계의 영원한 평화’에 기여하는 의의를 지녔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렇게 민족자결주의에 의해 전환된 그의 사고는 새로운 논리를 통해 민족주의를 더욱 발전시켰다.

한편 여운형은 상해 임시정부의 분열상을 경험하면서 민족 내부의 단결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는 1919년 3.1운동을 전후하여 해외의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했고, 1921년에는 독립운동의 분열상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운동’을 위해 “일차 각지에 산재한 동지를 회합하여 장래 대계를 완전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운형 2008, 59~61). 곧 1920년대 초반부터 그는 독립운동 내부의 분파를 타파하고 통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제로 생각했다.

이러한 여운형의 인식은 공산주의를 접한 이후에도 지속되어 민족 독립을 위해 이념의 차이를 극복할 것을 주장했다. 우선 1920년대 중반 중국 혁명에 종사했을 때도 그는 중국 민족운동에 대해 손문의 연이연공정책(聯俄聯共政策)과 동일하게 이념의 차이를 넘어 좌우가 연합할 것을 주장했다.<sup>15)</sup> 다음으로 해방 직후 건준을 결성하면서 우파, 중도파, 좌파 및 국내나 국외 세력 구분 없이 모든 반일 세력을 결집시키려 했다. 그리고 1946년 제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에도 그는 “진정한 통일정부는 좌우의 안전한 협력에서 수립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좌우의 세력에게 이를 요구했다(〈독립신보〉, 1946.6.12.; 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 1991, 299). 또한 그는 날로 벌어지는 남북 간의 격차와 분립을 막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협상과 통일을 성사시키려 했다. 곧 그는 해방 이후 보다 본격적으로 좌우협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 이는 그의 민족주의가 이념을 뛰어 넘어 민족 전체를 ‘통합’하려는 성격을 지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결국 사회진화론을 기초로 한 자강운동에서 출발한 여운형의 민족주의는 민족자결주의를 접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했고, 이를 계기로 한국 독립을 생존권, 세계의 대세, 신의 뜻, 천부의 권리, 동양과 세계의 평화 등으로 정당화했다. 또한 그는 1920년대부터 민족독립을 위해 파벌, 지역, 이념을 넘어서 모든 민족 내부 세력이 연합할 것을 가장 강조했다. 사회진화론과 민족자결론은 대다수 한국인들의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해방 이후에 좌우협작을 주장한 세력은 소수였다. 이러한 점에서 좌우협작으로 대표되는 통합적 성격은 그의 민족주의가 지닌

15) 연이연정책은 손문이 중국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소련과 공산주의와도 손잡는다는 정책을 가리킨다(여운형 2008, 133).



중요한 특징이다.

## 2) 공산주의(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인식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은 공산주의에 대한 형의 인식을 이렇게 정리했다. 여운형은 러시아 혁명 이전까지는 미국 민주주의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여 예수교 신자가 되어 신학공부를 했는데, 혁명에 의해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계급차별이 철폐되는 것을 보게 되자 사회주의가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더욱이 파리 강화회의가 제국주의자들의 야욕으로 실패하자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졌다. 그런 상황에서 1920년 국제공산당이 조선 독립운동을 원조할 것을 약속하자 그는 고려공산당에 가입했다. 또한 그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나라와 민족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차 소련식 공산주의와 멀어지고 민주적 사회주의로 전환했다(여운홍 1967, 81~82). 그러면 과연 공산주의에 대한 그의 인식이 어땠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공산주의에 대한 여운형의 견해는 1929년 7월 19일 경기도 경찰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929년 7월 19일)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산운동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夢陽呂運亨先生全集 發刊委員會 1991, 416).<sup>16)</sup>

(답) 나는 계급이라든가 당파 등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조선민족의 행복을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공산운동에 참가한 것도 조선독립의 편의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 국제공산당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16) 여운형은 공산당에 입당한 이유를 묻는 일본 검사의 질문에 대해 “한국독립운동을 시작한 후, 영, 미, 불 등의 각국도 우리들의 거사를 동정하고 있었지만 그 동정은 단순한 정신적 원조에 그치고 물질적으로는 하등 원조한 일이 없소. 그러나 노농정부는 야심이 있다고는 해도 200만 원이나 원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 우리들은 독립운동 달성을 위해서는 노농정부와 손을 잡는 것이 필요했고, 손을 잡기 위해서는 공산당에 참가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소”라고 답했다(이정식 2008, 268).

원조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당신과 같은 유력자들이 참가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권고가 있었으므로 나는 이동휘 등의 그룹에 가입하게 되었다.

여운형은 이념이 아닌 국제공산당이 독립운동을 원조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공산운동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지식이 일천했고 임시정부도 소련의 지원을 수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신뢰할 만한 진술이다.

그런데 1920년대를 거치면서 여운형은 일정 정도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하고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국제공산당과 가깝게 지내면서 공산주의 서적을 접했고 다음과 같이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언급했기 때문이다(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 1991, 443).

(문) 너의 주의는 무엇인가?

(답) 나 개인으로서의 주의는 마르크스주의자이다. 또한 조선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적 행동을 한 것이다. 러시아에 레닌주의가 있듯이, 중국에는 삼민주의(손문주의)가 있고, 조선에는 여운형주의로써 하는 것이 조선해방의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여운형은 자신이 마르크스주의자이지만 조선 현실에 필요한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 1991, 544).

(답) 이상으로서는 공산주의에 찬성하지만, 실행에서는 조선에 그대로 갖고 올 수 없다. 조선을 우선 자본주의로 발달시키고, 그 후 공산주의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 어느 나라에서나 마르크스주의는 형태를 바꾸어 실행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신경제정책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5개년 계획이 이루어졌다. 즉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고, 러시아에서조차도 마르크스주의는 그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다음 단계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후진국에서 곧바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운형은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논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자본주의가 아직 발전되지 않은 조선에 공산주의를 그대로 실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다.<sup>17)</sup> 그래서 그는 공산주의의 이상은 찬성했지만 조선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부정했다. 곧 마르크스주의를 조선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그가 1920년대 후반 마르크스주의를 일정정도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무조건 수용하는 ‘교조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사상적 유연성’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운형은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인 유물론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 1991, 544).

나는 기독교를 믿고 신이라는 관념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나는 유물론이 유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비록 기독교에 대한 여운형의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그가 장기간 전도사로 활동했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신(神)을 부정하는 유물론을 쉽게 수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sup>18)</sup> 따라서 그는 유물론에서 신을 부정하는 측면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그가 마르크스주의를 선택적으로 수용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여운형의 활동을 통해 그의 이념을 추론할 때 그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거의 한 번도 공산당 활동을

17)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 여운형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이란은 여운형을 ‘개론주의자’, 곧 ‘Outline주의자’라고 규정하면서 그에게 공산주의는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하는 막연한 생각이니 그 이상의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가 공산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이정식 2008, 284-288).

18) 1929년 7월 8일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그는 “일찍이 기독교를 믿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한데 비해, 8월 6일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했다(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 1991, 408; 544).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1920년 고려공산당에서 가입만 했지 활동하지 않았고 이후에 만들어진 조선공산당과도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것도 국공합작을 통해 중국혁명을 성공시켜 조선독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였고, 1930년대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 재직할 때 좌익계 인물들을 고용했지만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활동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공산주의자였다면 그는 노동자, 농민, 일반대중 속에 들어가 공산당 조직을 건설하거나 노동해방을 위해 활동했을 것이다.

결국 마르크스주의의 이상에 공감하지만 조선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실천하는 것에 반대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여운형은 공산주의를 전적으로 수용했다기보다는 당대의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피압박민족에 대한 소련의 지원과 이상으로서 공산주의가 지닌 진보성에 이끌려 그것을 선택적으로 수용했다고 보인다.

그러면 여운홍이 지적하듯이 해방 이후 여운형의 이념은 ‘민주적 사회주의’로 전환되었는가? 이 주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사실은 그가 초기 공산주의자와 협력했지만 인공 수립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거리를 두었다는 점이다. 우선 1945년 10월 1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공산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여운형 2008, 333).

노동자·농민 및 일반대중을 위한 것이 공산주의냐? 만일 그렇다면 나는 공산주의자로 되겠다. 노동대중을 위하여 여생을 바치겠다. ... 나는 공산주의자를 겁내지 않는다. 그러나 급진적 좌익이론은 나는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여기서 여운형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노동자, 농민, 일반대중을 위하지만 급진적 좌익이론을 주장하는 조선공산당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나는 ‘공산주의자를 겁내지 않는다’는 표현은 자신이 공산주의자와의 연대를 꺼리지 않거나 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 진술이었다.

다음으로 여운형은 1946년 이후 인민당, 사회노동당, 근로인민당 등 조선공산당과 구별되는 정당을 결성하고 좌우합작을 추진하는 등 그들과 다른 노선을 걸었다. 특히 “몽양의 정치이념을 실천하는 정당”인 인민당의 노선과 성격은 다음

과 같이 조선공산당/남조선노동당과 달랐다(조선인민당 1946, 13).

우리 인민당은 전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요, 진보적이요 양심적인 자본가나 지주까지도 포섭하고 제후해서 광범한 혁명적 민족전선을 지어 현 단계에 적용한 가장 대중적인 정당으로서 긴급한 국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여운형은 인민당을 통해 공산당과 달리 노동자, 농민 뿐 아니라 자본가와 지주를 포용했다(이만규 1946, 272). 특히 그는 급진적 좌익 이론을 비판하면서 영국에서 “인민의 총의에 의해 노동당의 애틀리가 정권을 잡”았고 “조선에 적합한 정치도 당연히 새로운 민주주의”이며 “의회를 통하여 순민주적인 입장에게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여운형 2008, 343).<sup>19)</sup> 일반적으로 민주적 사회주의가 사회주의를 실현하되, 그 방법에 있어서 독재나 혁명보다는 민주적 방식을 중시하는, 곧 의회주의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시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해방 이후 여운형의 인식은 여운홍의 언급대로 민주적 사회주의로 볼 수 있다.

결국 여운형은 러시아 혁명의 진보성과 식민지 피억압민족을 지원하는 국제공산당에 이끌려 공산주의에 경도되었다. 그러나 그는 공산주의를 이론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조선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 했다. 또한 그는 공산주의자와 연대하려 했지만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도, 그들과 같이 활동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공산주의는 그가 지향하는 노동자, 농민 등 일반대중을 위한 사회 또는 무계급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적’ 이념이자 조선독립에 도움을 주는 이념이었다.<sup>20)</sup> 따라서 그는 공산주의를 매우 유연하고 실용주의적으로 이해했다.<sup>21)</sup>

19) 그는 ‘신조선 건설의 대도’에서 “급진적 좌익 이론이 나는 정당하다고 찬성 못한다”고 말했다(여운형 2008, 350).

20) 그는 “우리 국가 조직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무계급 상태의 출현으로서 완성”된다고 주장했다(여운형 2008, 343).

21) 1929년 일본 법정은 여운형에게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3년형을 언도했는데, 이는 그들이 그를 공산주의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에게 국가변란죄를 적용하여 훨씬 무거운 형량을 언도했을 것이다(여운형 2008, 165).

## 3)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구상

여운형은 1945년 8월 28일 발표한 건준 강령에서 “전 민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명시했다(여운형 2008, 327). 이는 그가 지향하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가 정확히 언제부터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접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는 대한제국 시기 근대교육과 기독교를 통해 평등 이념을 습득했고 자강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1919년 12월 일본에서의 연설에서 그가 “민주공화국이 대한민족의 절대요구요, 세계대세의 요구”이며 “우리의 건설국가는 인민이 주인이 되어 인민이 다스리는 국가일 것”이라고 주장한 점은 당시 그의 핵심적인 정치이념 또는 그가 지향하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이고 민주공화국임을 보여준다(여운형 2008, 53).<sup>22)</sup> 곧 당시 그는 인민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했다. 이런 사고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1920년대 공산주의에 경도된 이후에도 그는 공산주의보다 ‘민중 전체의 의사’를 더 중시했다(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 1991, 545).

(답) 시종일관 조선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할 심산이다. 전체가 모두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면 당장 하고, 나쁘다면 즉시 실행하지 않는다. 일부를 위해 운동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문) 그러면 조선독립의 날에는 의회주의를 실행할 심산인가?

(답) 그렇다. 민중 전체의 의사에 맡길 것이다.

해방 직후인 1946년 1월에도 여운형은 “조선에 적합한 정치”는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높고 낮고 부하고 강함이 없는 완전한 무계급 상태”라고 주장했다(여운형 2008, 342). 또한 그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주권은 한 계급의 독점이 아니고 전혀 인민에게 있는 것”(여운형 2008, 344), 또는 “우리

22) 그는 임시현장에 ‘대한민국은 황실을 우대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자 상해 임시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여운홍 1967, 42).

국가의 조직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무계급 상태의 출현으로 완성”(여운형 2008, 343)된다고 언급했다. 물론 그가 ‘무계급 상태’를 분명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자·농민 및 일반대중”을 위하겠다는 언급 또는 “노동대중을 위하여 여생을 바치겠다”(여운형 2008, 333)는 언급에서 볼 때, 그것은 모든 인민이 빈부격차 없는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그는 “자치와 평등을 기본 전제로 하여 과거의 남존여비 사상을 철저히 버리고 일체가 평등하여야 할 것이며, 또 관리되신 분들도 과거의 개념을 떠나 … 관리 자신이 인민 대중의 철저한 종노릇을 해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할 것”(여운형 2008, 354)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자치와 평등을 기초로 인민의 뜻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사회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민주주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운형은 그것이 인민의 투표에 의해, 그리고 다수의 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정치과정으로 이해했다(여운형 2008, 333).

해방된 오늘날 민주주의의 새 조선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조선에 적색이 어디 있느냐? 대체 공산주의자들을 배제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민주주의 국가로 건설하면 그만 아니냐. 많고 적은 것은 결국 인민투표로 결정할 것이다. 영국을 보라. 6, 7년 간 전쟁의 공로자 처질이 물러나고 노동당이 승리했다. 그러나 적색은 아니다

여기서 여운형이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민주주의 조선을 건설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지만, 여기서 드러난 그의 사고는 민주주의란 인민의 투표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정치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sup>23)</sup>

그러면 여운형이 구상한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우선 그는 건국동맹의 정책세목(1944년)에서 민주주의 조선 건설에 필요한 정치적 목표를 제시했다. 그것은 “만 20세 이상 남녀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확립”, “언론·출판·집회·결사·거주·신앙의 유(有)자유”, “부인 해방과

23) 다른 곳에서도 여운형은 “다소의 문제는 결국 인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여운형 2008, 350).

남녀평등권의 확립”, “봉건적 인습의 타파” 등이었다(여운형 2008, 313~314). 이는 그가 봉건제의 해파와 함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인식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령 또는 당시 많은 정당이 표방한 내용들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그는 동시대인들의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여운형은 무계급 상태나 노동자, 농민, 일반대중을 위한 정치체제를 주장했는데, 1944년 건국동맹 강령에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측면의 내용이 담겨있다. 첫째, “최저임금제의 확립”, “8시간 노동제의 확립”, “부인 및 소년 노동자의 야간 작업·갱내 작업·위험 작업의 금지” 등 노동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졌다. 이는 당시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실시된 것으로 건국동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실습·양로·질폐(疾廢)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실시”, “공영세탁소·유치원·양로원·임산부 보양소의 설립 확충”, “교육기관의 대 확장, 근로자 교육 실시와 그 교육비의 국가 보조 또는 부담”, “진료기관의 공유화와 사회 위생시설의 확충”, “공영주택 공영식당의 증설” 등 인민의 생활과 관련된 많은 부분을 국가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셋째, “고도의 누진소득세의 부과와 노동자를 위한 제 세제의 개혁”, “근로자로 중심한 기업관리의 실시”, “공업·광업의 계획적 확충과 기술자의 계획적 동원” 등 친 노동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여운형 2008, 313~314). 이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인식이 사회주의의 영향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945년 인민당 강령의 경제 부문은 “원칙적으로 토지는 농민에게로”, “중요 생산교통 통신기관은 국유로”, “중요기업 상업기관은 국영으로”, “계획경제제도의 확립”, 현재의 공업 시설에 대해 “대(大)는 국영으로 소(小)는 민영으로”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여운형 2008, 355). 여기서 특이한 점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아닌 경자유전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그가 지향한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가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혼합경제라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그는 사회주의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지만 전적으로 그것의 영향만을 받지는 않았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여운형의 구상에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혼합경제를 포함하여) 사회주의의 강한 영향이 당시 극우정당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들에게서도 일반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특히 우파 주도로 수립된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에도 사회주의적인 경제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여운형 뿐 아니라 당대 많은 정치세력들이 이러한 내용이 민주주의 실현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1920년대 말 세계대공황을 겪은 이후 독일을 비롯한 여러 서구 국가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 사회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에서도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에서는 심지어 당시 우파로 간주되던 이승만도 “자본주의 독재의 모순을 지양”한다거나 자신의 민족주의가 “민족 전체의 복리와 행복을 목표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후지이 다케시 2008, 13~124). 이를 고려할 때,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여운형의 사고는 당대의 사상적 조류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결국 “진정한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그 전제로 하는 정치 형태”라는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여운형은 시장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국민의 대다수의 노동층의 경제적 해방”을 “달성할 수 있는 정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곧 그가 구상한 민주주의는 대중의 사회경제적 평등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의 형식 과정이 반드시 대중으로부터 조직되어 올라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여운형 2008, 359). 이는 민주주의가 대중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는 사고였다. 따라서 그는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 곧 대중에 의한 정치이며, 동시에 경제적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정치 형태라고 생각했다. 그가 지향한 민주주의란 대중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 및 사회경제적 평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정치체제였다.

#### 4. 나가는 말

이상에서 여운형의 정치적 활동과 사상적 궤적, 그리고 당대의 주요 이념이던 민족주의 및 공산주의에 대한 그의 인식 및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인식과 구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해방 이후의 한국 정치사상의 전개과정에서 그는 어떤 위상을 지니는가?

해방 후의 정치 지형에서 여운형은 ‘중도 좌파’ 또는 ‘좌파 민족주의’로 간주되었다(도진순 1997, 5). 물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범주화는 그의 정치 활동에 따른 이념적 평가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범주화가 적절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정치 활동으로 볼 때, 그는 한편으로 식민지 시기 고려공산당의 가입, 소련의 독립운동 지원 수용, 그리고 해방 이후 건준과 인공에서 공산주의자들(조선공산당)과의 협력, 북한 방문, 소련 및 북한 관계자들 접촉 등 공산주의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시기에도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활동하지 않았고 인공 수립 이후에는 조선공산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만들어 활동했고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정과 협력하려 했다. 이는 그가 상대적으로 우파보다는 좌파 공산주의자들과 가까웠지만 그들과 차별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곧 그에게 공산주의자들은 사안에 따라 협력할 수도, 따로 할 수도 있던 세력이었다. 곧 그는 ‘순수한’ 좌파 또는 ‘극좌파’에 속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여운형은 필요에 따라서는 좌파 뿐 아니라 우파와도 결합하려 했다. 이는 식민지 시기 중국혁명에서 국공합작을 위해 노력했고 해방 후에도 좌우합작과 남북연합 등을 추진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곧 그는 독립과 국가건설을 위해서는 이념과 노선을 떠나 모든 정치세력이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1920년대 중반 신간회의 결성을 가져왔던 통일전선론, 해방 이후 백남운의 ‘연합성 신민주주의론’과 배성룡의 ‘신형’ 민주주의론, 그리고 조소앙과 안재홍의 좌우 연합 인식 등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특정 이념보다 독립과 국가건설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우선적으로 사고했다는 점, 그리고 좌우의 극단적 측면을 지양하고 양자를 중간에서 수렴시키려 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념보다 민족적 과제를 우선했기 때문에 ‘민족주의 세력’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좌우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기에 ‘중도’로 범주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유사한 사고를 지녔던 여운형 역시 민족주의 또는 중도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면 이념의 측면에서 여운형의 인식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는 한

때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했고 자신을 ‘마르크스주의자’로 표방했다. 그리고 그가 구상했던 새로운 민주주의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무계급 상태’이고 경제적 측면에서 주요 산업 시설의 국영화, 계획경제제도 도입, 노동자 중심의 기업 관리 등 사회주의적 요소를 지녔다. 따라서 이념적 측면을 볼 때 그는 좌파의 범주에 소속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운형이 주장했던 사회주의적 내용들이 좌파만의 주장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런 내용들은 식민지 시기부터 김구를 비롯한 우파 세력과 조소앙 및 안재홍과 같은 중도우파 세력도 표방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 조항에도 일부 포함되었다. 이는 식민지 시기와 해방 후, 이념과 무관하게 많은 정치세력이 사회주의적 내용들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여운형이 좌파라서 이런 내용을 주장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공유했던 사회주의적 내용들을 수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그는 양자(신념과 시대적 과제)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식민지 시기부터 공산주의를 조선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념의 측면에서도 그는 순수한 좌파 또는 극좌파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치 활동과 이념을 종합하여 평가할 때, 그는 해방 후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형에서 중도 좌파 또는 민족주의 좌파로 볼 수 있다.

그러면 현대 한국 정치사상에서 여운형의 인식이 지닌 특징은 무엇인가? 그는 해방 후 보수주의 또는 급진주의를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키려 했던 우파 또는 좌파와 달리 기성 이념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변형시키려 했다. 이는 그가 공산주의에 공감했지만 노동자가 소수인 한국 현실을 고려하여 급진적인 혁명을 반대하고 의회주의를 수용하려 했다는 점과 주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계획경제를 주장했지만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한 점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적대세력을 배제했던 극좌, 극우와 달리 분단 극복을 위해 좌우합작을 추진했다는 점은 그가 특정 이념에 속박되지 않고 현실을 중심에 놓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곧 그는 특정 이념보다 한국의 ‘현실’을 중시하여 그에 맞게 이념을 변형, 수정시킨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인민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급진주의를 한국적 맥락에서 독특하게 변용시킨 사상가였다. 이는 자유주의의 보수적 전개 및 사회주의의 조속한

출현,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중적 질서의 중첩적 병존’이라는 해방 후 한국 정치의 지배적 흐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강정인 2012, 184). 그 결과 그는 당시 주류 정치세력으로부터 배제되어 소수로 전락했고 결국 강제로 정치현장에서 축출되었다. 결국 그는 한국 현대 정치사상사에서 보기 드물게 현실을 중심에 놓고 이념을 변형시켰던 현실주의자이자 실용주의자였다. 동시에 민족을 중심에 놓으면서도 일반 대중의 정치참여에 의한 민주주의를 구상했던 민주적 민족주의자였다.

【참고문헌】

- 장덕상. 2007. 『여운형 평전』. 역사비평사.
- 강정인. 2012. “박정희의 정치사상: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1호.
- 국사편찬위원회. 2003. 『소련군정문서, 남조선 정세 보고서 1946~1947』. 국사편찬위원회.
- 도진순. 1997.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대학교출판부.
- 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 1991. 『(夢陽) 呂運亨全集』 1. 한울.
- 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 1993. 『(夢陽) 呂運亨全集』 2. 한울.
- 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 1997. 『(夢陽) 呂運亨全集』 3. 한울.
- 박찬승. 1992. 『한국근현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 박찬승. 2010. 『민족·민족주의』. 소화.
- 서중석. 2010. 『지배자의 국가, 민중의 나라』. 돌베개.
- 심지연. 1991. 『인민당 연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여운형 편. 2008. 『조선 독립의 당위성(외)』. 범우.
- 여운홍. 1967. 『夢陽 呂運亨』. 靑厦閣.
- 이기형. 2000. 『여운형 평전』. 실천문학사.
- 이만규. 1946. 『呂運亨先生鬪爭史』. 민주문화사.
- 이정식. 2008. 『여운형: 시대와 사상을 초월한 융화주의자』. 서울대출판부.
- 이환의. 1993. “나는 유물론자가 아니다: 몽양 여운형론.” 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 1993. 『(夢陽) 呂運亨全集』 2.
- 정병준. 1995. 『몽양여운형 평전』. 한울.
- 조선사상운동연구자료출판부. 1946. 『여운형선생에 대한 관결문』. 群書堂書店.
- 조선인민당 편. 1946. 『인민당의 노선』. 신문화연구소출판부.
- 최상룡. 1997. “여운형의 사상과 행동: 원칙과 타협의 지도자.” 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 『(夢陽) 呂運亨全集』 3.
- 최장집. 1997. “한국민주주의·민족주의와 여운형.” 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 『(夢陽) 呂運亨全集』 3.
- 후지이 다케시. 2008. “제1공화국의 지배 이데올로기: 반공주의와 그 변용들.” 『역사비평』. 83호.

Eccleshall, Robert. et. al. (eds). 1994. *Political Ideologies*. Routledge.

투고일: 2013.02.26    심사일: 2013.04.03    게재확정일: 2013.04.10

【ABSTRACT】

## Yeo Un-hyeong's Political Thoughts: With a Focus on His Positions Towards Nationalism, Communism, and Democracy

Jeon, *jaeho* | Sogang University

This article studies Yeo Un-hyeong's political activities and thoughts. An important figure in modern Korean political history, Yeo's political ideas were influenced by a wide range of ideologies including Donghak ideology, Confucianism, Christianity,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nd communis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Yeo participated i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China and several Chinese revolutionary movements, as well as the Korean nationalist movement carried out in the field of journalism within the peninsula. Immediately following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Yeo participated in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 as well as the People's Republic. When the conflict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began to intensify, he pursued the Left-Right Collaboration Movement.

Most essential to Yeo's political thoughts, however, was nationalism. In the early stages of his political development, Yeo participated in the Self-Strengthening Movement as influenced by social Darwinism. Then, from the late 1910s, Yeo, influenced by principles of self-determination, argued that national independence was an individual's natural right. After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he began to sympathize with communism. Upon witnessing the Soviet Union's support for Korean independence, Yeo tried to adapt communist principles to Korea's political situation. Eventually, the new political system Yeo came to settle on was egalitarianism, a society without class and governed by the people. Yeo also

supported a form of democracy based on socio-economic democracy principles. Yoe became a ‘democratic’ nationalist, a natural development considering his focus on the nation and his emphasis on a democracy centered on heavy popular participation.